

농식품부 공모 빠른 대응

진안군, 내년 지역개발사업 신규 5개 지구 총 120억 원 예비계획서 제출

진안군은 21일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지구 총 120억 원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기초육성사업에 동향면, 장전면 2개 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백운면 두원마을 1개 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진안을 하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2개 지구를 신청했다.

특히 내년도 농식품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배후마을을 중심지(면소재지)에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 소재지가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거점기능을 위한 기초생활거

점육성사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진안군은 매년 농식품부 국비 확보를 통해 전국 최대 지역개발의 토대를 특색 있게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여건 조성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2018년 신규사업에 3건을 신청해 총사업비 130억원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진안군은 11개 읍·면소재지 중 9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 2개 읍·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관내 모든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군민 모두에게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생활편의 기초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구별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립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사업의 타당성, 연계성, 차별성을 차질하게 검토하여 중앙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9개소 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20일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개소(기초생활거점 2개소(장계면, 계북면), 농촌다움복원(금덕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6개소(송학골, 봉서, 마평, 구암, 덕곡, 음신마을)에 대해 추후 농림부 중앙평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자체점검은 실제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상지구별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 추진위원장의 실천감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주민자

의 역량을 강화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지역특화를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의 한 유형으로, 장수군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16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19년에도 9개 지구를 신청했다.

기존의 관 주도적인 하향식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등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이어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대산지 선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장수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가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등을 통해 공모사업 평가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경제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자체점검이 다가올 평가에 대비해 마을리더의 마을이해역량 및 실천감각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우리 힘으로 마을을 더욱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여 사업선정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방범용 CCTV 추가·교체사업 추진

4억 6000만원 투입... 86대 추가·교체, 주요 도로 3곳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무주군이 주민안전을 위해 6월 말까지 CCTV 추가·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을 확대·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4억 6천여 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마을방범용 CCTV를 고화질(200만 화소)로 추가·교체(69개 마을 86대)하고 주요 도로 3곳에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무주군 읍내를 비롯한 학교와 도시공원 주변에 설치한 CCTV 주변에 조명 안내판을 설치(150곳)해 야간에 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민들이 야간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무주를 외곽도로와 무주읍~대차리 구간에도 CCTV 13개를 추가로 설

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교체하는 CCTV에 대한 관리·운영(24시간 관제)은 무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맡을 예정으로 범죄 등 사건·사고에 방은 물론, 상황 발생 시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과 이승하 정보통신 담당은 "잠재적 범죄인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각종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CCTV 통합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357㎡ 규모)에는 차량관측과 어린이 안전, 도시방범, 마을방범, 공원, 재난재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한 CCTV 419대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12명의 관제인력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군청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과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찰 등도 함께 지역과 주민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의 눈이 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강력범죄 22건,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발견 36건, 교통사고 및 안전대응 72건 등 164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태계교란 큰입배스 퇴치 '돌입'

장수군, 1톤 수매사업 실시... 1kg당 5000원

장수군은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인 큰입배스 퇴치를 위해 19일부터 목표량 1톤에 대한 큰입배스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퇴치사업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수읍 수분리 뜰농생태공원 사무실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장수군민이 포획한 큰입배스를 1kg당 5,000원에 수매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한다.

특히 장수군은 큰입배스 퇴치를 위해 수매사업과 함께 산란철인 이달 중순부터 장남제 등 일부 저수지에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배스 알을 제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큰입배스는 토종어류의 알과 치어 포식으로 토종어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생태계 교란종이다"며 "생태계 회복을 위해 큰입배스 수매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외래어종인 큰입배스가 관내 저수지 등에 넓게 분포돼 있어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 시킴에 따라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위촉

장수군은 지난 20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제2기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 도입 4년째를 맞이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년 동안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평균 13회의 심의회를 개최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대상자 선정·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심사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공시심의 등 지방재정법상 위임 가능한 각종 민간위원회의 역할도 대신하는 등 장수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위촉된 제2기 장수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군의 모든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전국화재대피 훈련 실시

진안군은 21일 오후 2시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군 시범훈련으로 실시된 진안군 의료원 화재 대피훈련에는 민방위대원, 진안군, 의료원, 진안119안전센터, 진안경찰서,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화재 시 비상벨 울림, 승강기 작동정지, 방화셔터 차단,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환기대피 등 실제 화재발생시 꼭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모든 관공서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마이골작은영화관, 의료원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원마실장애인거주시설과 산불취약지역인 마이산 일원을 중점 훈련장으로 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림 패트롤팀 운영

진안군은 생활권 수목에 의한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명 '산림의 119'로 불리는 산림패트롤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진안군 산림패트롤팀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

진안군은 지난해 총 127개소 주택, 도로변 등의 위험목 320주를 제거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1개소 42주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전시관 개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전시관 개관식이 21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개관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군태권도협회,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태권도복합기운동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 전시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수 군수는 "홍보 전시관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성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곳이 태권도원을 잇는 우리 군 또 하나의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95㎡규모로 조성된 홍보전시관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발자취를 공유해 감동의 순간을 역사로 남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전시관에는 응원수건과 리플릿(대회, 버스투어, 태권도원 가이드 맵), 백서 등 대회 및 무주, 태권도원 관련 책자, ID카드 등 비품, 위촉장, 대회 포스터, 사진 등 기념 홍보물과 유니폼, 관내 식당에 배포했던 메뉴판, 위생용품 등 29종 140여 점이 비치돼 있으며, 상시 관람(09:00~18:00)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보건지소·진료소, 영농철 조기진료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장수군은 바쁜 영농철을 맞아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이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기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진료시간을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앞당겨 운영하게 된다.

장수군보건지소·진료소·영농철을 맞아 보건지소·진료소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해 농번기철 주민 편의제공과 고품격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보건지소·진료소(063-350-3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